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에게 투쟁 기조에 대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년 1월 25일 오후 12:15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저지를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여러 인권활동가들에게 제안드립니다.

현재 농성투쟁이 긴급하게 제안되고 실행되는 바람에 인권활동가들 안에서 이번 투쟁의 의미와 투쟁 기조가 충실하게 토론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인권활동가들 안에서도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의 의의를 바닥부터 재점검해보는 토론의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의미에서부터 인권운동이 국가인권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등 이번 대통령직속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 그러나 이번 투쟁을 꾸러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토론회의 이름은 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이나 수위를 정하는 문제,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함께 합의하고 진행하는 문제, 투쟁에 대해 평가할 때 공동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문제 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일) 오후 4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와 관련된 투쟁의 의미와 기조에 대해 바닥부터 하나하나 토론하는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이번 투쟁의 취지와 기조에 대한 류은숙 활동가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요일 토론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이번 투쟁의 향후 기조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류은숙 활동가의 글을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이견이나 더 생각해야 할 지점 등을 동료 인권활동가들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써서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하셔도 좋겠고, 글을 쓸 여유가 없다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뜻을 밝혀주셔도 좋겠습니다.

#) 연락처 : 유해정(투쟁기획팀)

 국가인권위투쟁논의.hwp
28K